

# 소상공인 재도약 3.3조원...일자리 31조 '역대 최대'

## 내년 경제 예산 어디에 쓰이나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을 보장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 1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또 내년 일자리 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31조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211만명의 고용을 지원한다. 지난 31일 확정된 내년 예산안 중 경제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소상공인 위기극복·재도약에 3.9조=소상공인의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재도약 지원 예산이 올해 1조1000억원에서 내년 3조9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우선 소상공인 코로나19 위기 극복 예산으로 3조3000억을 편성했다. 이 중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예산은 1조8000억원이다. 올해 10-12월 손실 보상분과 내년 있을 방역 조치에 따른 보상분을 포함한 것이다.

또 만기 도래, 대출한도 초과 등으로 금융절벽에 놓인 저신용 소상공인 등에게 1조4000억원이 긴급 자금으로 공급된다. 저신용 영업금지·제한업종 7만 명에게 7000억원의 용자가 제공된다. 1인당 한도는 1000만원, 금리는 연 1.9%다.

## 방역조치 손실보상 1조8000억·저신용 소상공인 1조4000억 노인·장애인 등 공공 일자리 4만개 확대...외국인 건보료 지원

유망 아이템을 보유한 저신용자에게 재도약자금으로 1인당 1억원의 용자가 지원되고 청년고용을 1년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3000만원 규모의 용자에 대한 금리가 연 2%에서 1.8%로 감면된다.

이와 별도로 경영위기 업종에는 1곳당 2000만원의 긴급 경영개선자금이 지원된다. 총 238억원 규모다. 소상공인의 스마트화 등 성장 지원 예산으로 5000억원이 편성됐다. 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5000억원 증가한 1조6000억원이 편성됐다.

◇일자리 사업 역대 최대...211만명 지원=내년 일자리 사업 예산은 31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인 올해 본예산보다 1조2000억원(4.0%) 증액됐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는 101만개에서 105만개로 확대한다. 대부분 노인 일자리(84만5000개)가 차지하며, 장애인 일자리는

내년 2000개 늘린 2만7000개로 확대한다.

민간부문에서는 고용 장려금과 직업훈련 지원금 등을 통해 106만명을 지원한다. 이 중에는 신설사업인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 포함됐다. 중소기업이 취약계층 청년을 채용할 경우 1인당 연간 최대 960만원씩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 관련해 7만명을 신규 지원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 대상은 올해 40만명에서 50만명으로 확대한다. 청년의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도 10만명에서 17만명으로 늘어난다.

◇소부장·빅3에 5.8조원 투입=친환경·디지털 기반 산업혁신과 유망 전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예산이 올해 5조976억원에서 내년에 5조8274억원으로 14.5% 늘어난다.

우선 소부장 분야는 핵심 소재의 해외 의존도를 완화하는 동시에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전략

핵심소재 개발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략 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에 1842억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1조6845억원을 투입한다. 빅3 핵심 전략산업 예산은 9108억원이 편성됐다.

총 353억원을 투입해 인공지능(AI) 반도체 핵심기술과 한국 주도형 'K-센서' 기술 개발도 추진하며, 백신산업 전문인력 양성, 백신 원부자재 생산 고도화 기술개발 등 사업에 11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자동차는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위해 362억원을 쓴다.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전지 사업에는 2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디지털 뉴딜 관련 사업도 강화한다. 2791억원을 투입해 산업데이터, AI 등 디지털 기술 활용을 촉진하고 유통 전 과정을 디지털화해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신산업 추진을 위해 올해보다 2.7% 늘어난 4조8721억원을 관련 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과 보급 지원에 각각 7260억원, 3324억원을 쓴다.

◇농지연금 가입 65세→60세로=고령농의 생계 안정을 위해 농지연금 가입기준을 65세에서 60세로 완화하고 연금 지급 규모를 1809억원에서 2106

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여성 농어업인의 취약질환 특수 건강검진과 외국 국적 대상 건강보험료 신규 지원해 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한다.

농어업인의 원활한 보충공급을 위해서는 농림수산업자산용보조금(농신보)에 500억원을 출연하고, 농어가 공익직불제도제의 인착도 계속해서 지원한다.

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 규모도 늘렸다. 수리시설 개보수·배수 개선 등 사전예방에 투입하는 예산을 1조원에서 1조1000억원으로, 재해대책비·재해보험 등 사후적 피해 지원 예산은 8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농촌공간정비, 여촌뉴딜300 등 농어촌 활력 증진 패키지 예산은 5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늘려 345개 농어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청년 농어업인의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은 2000명에서 2220명으로 늘리고 공공임대 농지 임대 지원 비용은 6944억원에서 7323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광주·전남 상장사 영업이익 2배 '경풍'

### 14곳 상반기 2432억

올해 상반기 광주·전남 유가증권 상장법인 14개사의 영업이익이 전년의 2.6배 수준으로 뛰었다.

이는 한국전력의 실적을 제외한 수치로, 한전은 6분기 만에 적자전환하면서 상반기 기준 1932억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지난 31일 발표한 '2021년 상반기 광주·전남 상장기업 결산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한전을 제외한 지역 14개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은 243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27억)에 비해 162.2%(1505억원) 증가했다.

매출액은 4조4603억원으로, 전년(3조7317억원)에 비해 19.5%(7286억원) 늘었다.

전국 코스피 상장사 686곳의 매출액이 14.6%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69.1%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지역 실적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을 포함한 지역 코스피 상장사 15곳, 코스닥 19곳 등 34개사의 상반기 매출액은 32조7207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31조5872억원과 비교해

3.6% 늘었다.

이들 상장사의 적자는 1조7618억원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 570억원의 흑자를 낸 것과 비교하면 적자 규모가 무려 1조8188억원에 달했다.

순이익은 지난해 상반기 1467억원 손실에서 올해 9891억원 손실로, 8000억원 넘게 적자가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5.56%포인트, 순이익률은 2.56%포인트 각각 줄었다.

부채비율도 코스피는 120.3%, 코스닥은 63%로 전년 말과 비교해 각 9.5%포인트와 5.5%포인트 올랐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전국 평균 부채비율은 69%, 59%로,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 측은 "부채비율이 높은 지역 코스피 상장사들은 재무안정성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매출액 영업이익률 상위 기업으로 코스피에서는 광주신세계(35.2%), 한전KPS(13.4%), 부국철강(6.6%), 코스닥에서는 남화산업(52.5%), 와이엔텍(33.2%), 우리손에프앤지(20.9%) 등이 이름을 올렸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식기 교체로 분위기 바뀌오 지난 31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8층 생활전문관 '오덴세' 매장에서 그릇 모임을 선보이고 있다. 이 상품은 최근 한 예능방송에 나와 유명세를 탔으며 전자레인지·식기세척기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인기가 많다. <롯데쇼핑 제공>

## 소상공인 추석 자금 3000억 광주은행 내달 15일까지

광주은행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영자극 확보에 애로를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신규 자금 3000억원을 편성, 오는 10월15일까지 긴급 지원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 특별자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노무비나 체불임금 지급, 원자재 구매자금, 긴급결제자금 등에 지원된다.

이와 함께 2000억원의 만기 연장 자금을 편성, 고객이 원할 경우 만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광주은행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을 지난달 말 기준 2만6372건, 1조1725억원 실행했다.

이번 특별자금 대출은 업체당 최고 30억원 이내며, 산출된 금리 대비 최대 0.7%포인트를 우대한다.

송중욱 광주은행장은 "이번 추석 특별자금대출 지원으로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이익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펼쳐 지역과 상생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광주상의 '광주형일자리 인증' 참여 기업 모집

광주상공회의소는 오는 16일 광주시와 공동으로 '2021년 광주형일자리 인증'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광주형일자리 인증은 관내 기업 중 안정적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적정한 임금 지급과 근로시간 준수와 상생형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을 인증기업으로 선정해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인증 기업에는 종업원 수에 따라 2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며, 금융·세제·행정적인 인센티브 14종이 제공된다.

올해로 4년째를 맞는 광주형일자리 인증사업은 지역 14개사가 인증·지원받은 바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199.27 (+55.08)
↑ 코스닥	1038.33 (+6.49)
↓ 금리(국고채 3년)	1.395 (-0.003)
↓ 환율(USD)	1159.50 (-7.50)

사랑과 감사의 67년  
1954~2021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 2022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승미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 열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학 과	수 시	정 시	
인 문 사 회	신 학 과	30	15	
	한국어교육학과	2	2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코칭명생교육상담학 전공)	31	3	
사 범	유아교육과	7	3	
예 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3	6	
<b>총 계</b>		<b>93</b>	<b>29</b>	

※신학과는 군중서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1. 9. 10(금) ~ 14(화) · 전 형 일: 2021. 10. 1(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1. 12. 30(목) ~ 2022. 1. 3(월) · 전 형 일: 2022. 1. 10(월)

믿음에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역지소로 36